



## HOME OF FINE WATCHMAKING

### 전통과 혁신의 전설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 보이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의 중심에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모든 노하우는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습니다.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결과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워치메이커와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협동 에너지와 혁신 정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함께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통해 1833년부터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탄생시켰고, 예거 르쿨트르를 그랑 메종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예거 르쿨트르에서는 정기적으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다양한 아틀리에를 살펴보고, 헤리티지 갤러리와 복원 공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833년에 설립되고 1866년에 확장된 매뉴팩처의 역사적인 건물은 현재 완전히 새로워진 외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역사적인 건물의 외관 보수

5개월 동안 건물의 역사적인 외관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룩 샤푸 메종(Luc Chappuis Maison)이 쥐라 산맥의 암석으로 만든 새로운 회반죽과 새로운 창문틀, 부시해머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에 있어 이번 작업은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고, 메종의 소명 의식을 나타내면서 과거의 눈부신 역사에 경의를 표하는 기회였습니다. 입구의 상단에는 “MANUFACTURE D’HORLOGERIE(워치메이킹 매뉴팩처)”라는 아플리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 복원 공방

이 건물 벽 뒤편에는 복원 공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앤티크 타임피스는 이곳에서 열 명 남짓한 워치메이커의 전문적인 손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복원 공방은 헤리티지 갤러리와 인접해 있어 작업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워치메이커들은 원본 설계도를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위탁한 앤티크 타임피스와 포켓 워치, 그 밖의 작품 복원에 필요한, 수리가 불가하거나 변경된 부품들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무브먼트 제작을 위해 그랑 메종에서 제작한 약 6,000 개의 압인 또는 형철로 구성된 풍부한 컬렉션도 매뉴팩처에 보관되어 있어, 이 정교한 워치메이킹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헤리티지 갤러리

2016 년과 2017 년 사이에 리모델링된 헤리티지 갤러리는 예거 르쿨트르의 아이코닉 타임피스 및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생생하고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 주요 역사와 워치메이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창은 세련된 장식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대규모 공간에 두 개의 층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부분에서는 기술 도면, 특허, 설계도, 고서적, 고객 등록부, 광고, 카탈로그와 같은 서면 기록에서부터 의미 있는 연대기적 벤치마크에 이르기까지, 그랑 메종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랑 메종에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앙트완 르쿨트르가 사용했던 작업대도 전시되어 있어 마치 과거로 통하는 창문이 열린 듯합니다. 마치 몇 시간 전에 사용된 것이라고 상상하게 하는 마모된 목재와 낡은 도구가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애틀모스, 리베르소, 메모박스, 폴라리스... 시계 애호가들이 꿈에 그리던 이름들입니다. 헤리티지 갤러리 중앙의 기념비적인 유리 벽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계단 옆에 세워진 이 투명한 벽에는 예거 르쿨트르가 설계, 제작, 조립한 1,262 개의 기계식 무브먼트 중 340 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무브먼트 중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인 칼리버 101 은 1929 년에 개발된 무게가 1g 에 불과한 모델입니다.



관람 중에 만나보게 되는 413 개의 특허와 밀리오노미터에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44년, 앙트완 르쿨트르가 발명한 이 천재적인 도구는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미크론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친밀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위층에는 미적 걸작품과 특별한 모델들이 서로의 매력을 가리지 않도록 각각의 케이스에 담겨 나란히 전시되어 있으며 저명한 히브리스 메카니카 컬렉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사로 풍부하게 채워진 곳을 모두 둘러본 게스트들은 과거를 통해 현재가 더욱 돋보이는 그랑 메종의 심장부를 향한 독특한 워치메이킹 세계로의 여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레 드 주를 떠나는 그들의 눈에는 눈부신 반짝임이 서려 있습니다.